나눔터 70

2011 겨울호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곳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이윤상 **펴낸날** 2012년 1월 31일 **만든이** 김다미 **디자인** 디자인이즈
주소 (121-897)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02-338-2890~2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CONTENTS 70

4 **기획특집: 다음 장을 펴다**

5 다시 하는 숙제
8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깔대기, 다이어리
11 다른 삶을 기획하다 – 보다 자유롭고 생기 있게

15 **삶의 돋보기**

15 쉼 너머에 있는 '이상향'을 향해 지금, 여기에서 잘 살기
19 삶의 자취 남기기 – 기록을 좋아하세요?

24 **만나고 싶었습니다: 본 상담소 9대 소장 이윤상**

24 자원활동가에서 소장까지, 상담소와의 20년을 돌아보며

30 **문득 떠오른 질문**

30 지인이 성희롱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 **열림터 이야기**

33 2012년 열림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34 열림터 다이어리

36 **본편보다 재밌는 후일담**

36 한 달 만에 만나는 한해보내기

40 **상담소 밥상**

40 모과차 담근 날

42 **뛴다! 상담소**

46 **나눔과 참여**

46 NGO와 기업의 특별한 만남

49 **훈훈한 기부**

50 **회원 소식**

51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삶의 다음 장

혹시 남들처럼 사는 삶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매일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 페이지를 한 쪽 한 쪽 넘기는 것과 같겠지요.

긴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공간과 사람들,

그로 인한 경험들은 문자가 되어 깨알 같이 페이지를 채우거나 빈 공간을 다채롭게 채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장(chaper)을 다 써내려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연말연시마다, 나의 소속이 바뀔 때마다, 혹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때마다

손끝으로 책장을 만지작 거리며 넘길지 말지 망설이고는 합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난 욕구에 이끌리기도 하지요.

그 순간들은 나도 모르게 슬며시 넘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되고 무게 또한 무거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 간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나눔터 기획특집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며 삶의 다음 장을 펼친 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 쯤은 고민하거나 경험해 보았을,

혹은 꿈꾸어 보았을 이야기일 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제 막 삶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그녀들의 경험과 지혜가

여러분의 다음 페이지를 기획하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는 숙제

하나 | 본 상담소 회원

서점에는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30대에 꼭 갖춰야할 필수조건 45가지' 등 나이와 성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정해주는 지침서가 넘친다. 금융회사는 연금보험과 생명보험을 권유하며 특정 나이까지 해야 할 경제적 숙제를 알려주고, 미디어는 결혼과 출산의 적령기를 반복해서 가르쳐 준다. 누군가 출생 후부터 사망 전까지 한 사람이 평생 해야 할 일과 그 시기를 이미 다 정해 놓은 것만 같다. 그리고 우리는 치밀하게 짜인 계획표에 따라 주어진 숙제를 완수하며 살아간다. 만약 운 좋게 모든 과제를 마친다면 '잘 살고 있다'는 평가가 따르고, 소홀히 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면 어딘가 모자라고 부족한 '루저'가 된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인생의 과제와 지침, 평가를 수시로 점검하며 조급하고 불안하게 살아간다.

숙제가 제일 쉬웠어요

나는 숙제는 꼭 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빈 연습장에 영어 단어를 반복해서 채우는 숙제나 교과서 삽화를 똑같이 베끼는 이상한 숙제, 어려운 수학 문제도 일단 주어지면 무엇이든 곧잘 해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들 역시 차곡차곡 마쳤다. 대학 입학과 졸업도 시간에 맞춰 성실히 해내고 졸업 후에는 유학을 떠나 학위도 받았다. 방학 때는 인턴 활동이나 토익점수 취득 등 취직에 필요한 '스펙'을 차근차근 쌓았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어렵지 않게 대기업에 취직했다. 회사에서도 나는 착실한 직원이었다. 회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몇 차례씩 소속 부서와 업무를

바뀠지만, 여전히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회사가 내준 숙제를 성실히 하다 보면 원하던 사람이 되어 바라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수많은 인생 지침서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듯, 해야 한다는 많은 것을 정해진 시간 안에 마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숙제의 끝

연차가 쌓이고 연봉도 오르면서 내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주변에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도 안심하는 눈치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지침서대로라면 지금쯤 내 삶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야 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이만큼 숙제를 해낸 내가 뿌듯하거나, 원하는 삶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다. 마음 한 구석에서 자꾸 떠오르는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았다. 전보다 더 성실히 숙제를 마쳐도 나아지지 않았다.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주어진 숙제를 하다 보면 계획대로 살게 될 거라 믿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갔다. 업무에 대해 결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보다 늘었지만 그것이 내 삶에 대한 결정권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어느새 내 인생의 스케줄은 회사에 달려 있었다. 부서 이동이나 승진, 퇴사 같은 회사에서의 진로는 물론이고 퇴근 후의 생활도 회사의 일정에 좌우되었다.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부정하고 무언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더러 대출금 상환이나 보험금, 생활비 부담 등 늘어가는 경제적 책임은 내 발목을 잡았다. 이미 회사를 중심으로 꽉 짜인 스케줄에 익숙한 5년 차 직장인인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인생이란 원래 뜻대로 되지 않기 마련인데 투정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무기력하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져 가는 내 삶을 목격하면서 지금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성공과 행복의 길이라고 의심 없이 선택하고 해냈던

것들이 사실은 나보다 주변에서 말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물었다. 그동안 이루고 싶다고 믿었던 삶의 내용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했다.

한동안 나는 이제까지 최선을 다했던 많은 과제들이 사실은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를 착실히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았다. 꽤 긴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누군가 정해준대로만 살아온 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동안 참 열심히도 했던 숙제를 멈췄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내 의지와 속도대로 인생을 꾸려가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다.

숙제 다시 하기

얼마 전 나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뒤늦게 다시 학생이 되어 시작한 도전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는 숙제는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여태껏 해왔던 어떤 것보다 어렵다. 가끔은 회사가 꼬박꼬박 주던 월급이 그립기도 하다.

사실 나는 여전히 사회가 정해주는 숙제와 시간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미래가 불안하다. 그렇지만 이번엔 보기에 그럴 듯한 일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행복한 결정을 하려고,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다양한 삶의 방법을 내 인생에 대입해 보기도 하고, 나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인다. 내 인생이 회사나 다른 사람이 아닌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 즐겁다. 그리고 나만의 숙제로 채워갈 앞으로가 진심으로 기대된다.

❋ **하나** 리얼리스트 & 로맨티스트. 오랜만에 맞이한 겨울방학을 맘껏 즐기는 중입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깔대기, 다이어리

여름 | 본 상담소 회원

결혼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고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살림을 꾸릴지가 늘 주요 화두다.

협동조합에서 만난 '중년여성'들

처음으로 뭔가 가능성을 본 것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다른몸되기 프로그램에서였다. 지리산 종주 후에 홍성으로 가서 귀농해서 살고 있는 언니들을 만났다. 둘러앉아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이야기, 귀농한 사연,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들었다. 서울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홍성으로 귀농하신 분이 60대에는 아프리카로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 얘기가 생생할 정도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기를 느꼈다. 홍성에서 홍성 지역 유기농 생산자들의 유통창구인 '협동조합'과 지역 공동체 가게 등도 소개를 받고 둘러보았다. 짧은 체험이었지만 구성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흩어져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지속가능'한 경제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아보였다. 나 또한 그 안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후에 서울에 있는 도시 소비자들이 만든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취직을 했다. 약간 '듣보잡'이어서 주변에서는 약간 의아해 했지만, 나는 맘에 들었다. 무엇보다 오랜 자취생활에 지친 내 몸과 마음이 유기농 농산물 섭취

와 월급으로 안정을 찾아갔다.

업무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여성, 그 중에서 특히 '중년여성'이었다. 나의 중년여성에 대한 감수성은 항상 '엄마'에 딱 머물러 있었다. 다른 상이 없었다. 그 나이 또래를 떠올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면 그냥 '엄마'를 떠올리고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집안일을 해놓고 사무실에 나와서 자원 활동을 하고, 광우병 소 수입 반대 집회 현장 등에서 피켓을 들고,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또한 생협을 직접 경영해가는 주부들, 중년여성들의 파워에 나는 좀 '깜놀'했고, 대단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깔대기, 다이어리

친구 M과 서로의 일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 했었다. 생협에 취직한 후에는 '중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구상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중년여성들의 문화적인 욕구, 특히 여행이나 쉼을 주선하면 좋겠다는 것과 여행에서 자신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함께하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문제는 돈. 사회초년생인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강좌를 열려면 교육장이 필요하고, 여행을 가려면 경비가 필요하고, 책을 내려면 인쇄비 등의 출판비가 들었다. 사실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지만, 그럼 돈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앞에서 주춤했다.

'누구나' 쓸 수는 없을까. 누구에게나 자극이 될 수는 없을까. 그 통로를 찾고자 고심을 했고, 그 끝에 나온 것이 '다이어리'였다. 다이어리라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곁에 두고 글쓰기가 가능하다. 우리도 묻고 싶은 질문, 기록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다이어리 안에 넣을 수가 있었다. M과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2009년 중년여성을 위한 '인생의 화려한 오후 2시 레드 다이어리'를 만들었다.

다이어리는 어마어마했던 프로젝트의 깔대기 같은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만들어보고 싶었다. 더 해보고 싶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선택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서 훗날까지 소중히 간직한다면 얼마나 멋진가. 누군가 책장에서 꺼내 한 장 한 장 들춰보는 것은 자신의 글이겠지만, 빛바랜 디자인은 우리가 만든 그 다이어리였으면 좋겠다는 상상.

본격 '자'영업자로 살기

그 사이 M과 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이어리 작업실을 냈다. 월급을 받던 처지에서 월급을 직접 벌어야 하는 '자'영업자가 된 것이다. 사무실을 얻는 것, 제작비를 끌어오는 것, 같이 작업할 사람들을 구하는 일, 다이어리를 만들고 판매하고, 세금을 신고하고 어느 절차 하나도 '공'으로 되는 일이 없이 온전히 '노력'을 요한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보람차다. 스스로 일구고 그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꼭 요행 없는 농부 같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 손익분기점을 넘지도 못했고 널리 이름을 알리지도 못했지만 '시작은 순풍'이라며 소문을 내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처음이 힘들면 끝이 순탄하다고들 하니까.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길 중에는 분명 재미있고 진귀한 경험들을 듬뿍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든다.

❀ **여름** 상담소 회원, 소설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초 생활 수준 이상의 돈을 벌어, 사회에까지 공헌하는 것이 꿈인 비혼여성이다.

다른 삶을 기획하다

보다 자유롭고 생기 있게

유경희 | 생기랑마음달풀 연구소장

지난 해 12월, 나는 큰일을 저질렀다. 하고 싶다는 욕망이 차올랐을 때 시작할 수 있어 행운이다. 여성 상담 교육 연구소 <생기랑 마음달풀>! 내가 꾸린 공간의 이름이다. '생기를 얻고 마음을 달달하게 풀어간다'는 뜻을 담았다. 작은 사랑방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마주치는 인연들. 그 속에서 우연이 필연이 되는, 자기공부가 사람공부로 성장하는, 다시 세상 공부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고 싶었다. 나를 포함한 여성들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에너지를 충전해가는 장(場)을 만들고 싶었다. 운동을 하면서 늘 꿈꾸었던 공간이다.

여성주의와의 만남

나는 민우회를 통해 여성주의와 만났다. 1992년 초, 처음 민우회 문을 두드렸을 때를 잊을 수 없다. '가족주의' 틀 안에서 나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들과 눈 마주치며 나누었던 자신의 이야기들. 각각의 일상을 터놓다보니 가슴 속에 품고 있던 풀리지 않던 가족의 삶, 그 답답한 실체를 볼 수 있었다. 그 안에서 가족에 묶여 있는 나의 삶을 꺼내 놓는 과정만으로도 가벼워졌다. 하지만 활동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들렸다. "살던 대로 살아, 웬 오지랖인가? 책도 읽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할래? 잠시 뿌듯하지만 돌아가면 살림은 온전히 네 몫인데?" 하지만 여성운동의 현

장은 '나'를 다시 만나는 활력을 주고 있었다. 그 모든 걸 감수하고도 발걸음이 가는 곳이었다. 여자들, 우리는 통했다. 가족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가 있다는 값진 깨달음을 공유했다. 가부장적 체계내의 삶을 당연하다 생각했던 자신들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가슴 뛰는 일이었다. 먹거리를 나누고, 아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변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식을 갖는 일 모든 것이 내 일이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열정인지 일은 계속 확장되었고 다양한 경험은 나를 성숙하게 하였다.

여성주의와 만나는 일은 행복한 경험인 동시에 '불편'한 경험이다. 새록새록 알아가는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보니 싸워야 할 대상과 문제가 너무도 많았다. 이해는 좀 안 되지만 세상이 그렇지 하던 내가 왜?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두루두루 편한 게 좋은 거지 했던 내가 정말 그래? 하고 고개를 들 때, 지지리도 운이 없는 게지라고 했던 내가 어째서? 라고 의심할 때, 이 '불편'함에 대한 감수성이 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여성주의로 세상을 본다는 건 현실의 나와 충돌하는 것이며, 다른 목소리를 불편해 하는 기득권층들과 끝없이 맞서야 하는 것이었다. 운동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세상에 질문할 수 있는 힘은 커져갔고, 목소리를 내도 된다는,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갔다. 때로는 의미 있는 실천도 때로는 아쉬운 결과도 여성들과의 연대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은 값진 경험이었다.

치료와 휴식, '비우고 채우고'의 시간들

운동의 연차가 더해지면서 내 몸은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위염에다 신장이 안 좋다 하고, 만성피로감으로 몸은 젖은 솜 같았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잘 붓는데다가 폐경과 함께 온 갱년기 증상, 열이 오르면 가라앉지 않고 식은땀이 났다. 거기에다 어느 날 소리 없이 찾아 온 허리 디스크! 애초에 수술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에 일하면서 병원을 전전하였다. 양·한방 치료를 넘나들며 운동요법과 약물 치료, 봉독요법, 추나요법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였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 쉬어야 했다. 쉴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내 몸의 소리를 듣기로 했다. 만 15년, 기나긴 상근 활동을 마무리하고 치료에 전념했다. 5

개월 남짓 집중치료! 50대를 넘어선 나의 몸은 쉽게 달래어지지 않았다. 이미 '퇴행성'이란 꼬리표까지 달려 있었다. 걷고 운동하고 침 맞고 약물치료까지. 서서히 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년 가까운 시간, 치료와 휴식이 전부였다. 3년 남짓 이어진 휴식의 기간은 달콤했다. 해보고 싶었던 목공작업과 손바느질과 그림, 이 3종 세트에 무조건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동네 문화예술회관에서의 소박한 수채화 강좌. 그리는 시간 몰입할 수 있어 좋고, 아르쉬지(수채화 용지)에 퍼져 나가는 맑은 수채화 물감의 퍼짐이 나를 행복하게 하였다. 뚝딱 뚝딱 목공 작업은 또 다른 매력, 나무의 향과 맞춰져가는 나무퍼즐이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사포질만 빼면. 거기에 하나 더. 이전부터 관심만 있던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쉽지 않았다. 박음질만 자신 있던 나로서는 인형의 머리를 만들고 솜을 넣어 손발을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인형들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색감의 조화를 잘 맞추어 자연스러운 아이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각각의 과정은 무지개 빛깔의 다른 충족감을 내게 선물하였다. '비우고 채우고'의 시간들은 여유롭고도 풍성했다.

여자들의 사랑방 꾸리기

휴식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갈증.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정체는 분명했다. 늘 생각해 온 여자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에 대한 욕망! 바로 그것이었다. 운동하면서 만나던 활동가와 회원들,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다. 서로를 성장시키며,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가는 공간의 꿈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욕망은 분명하였으나 현실은 막막하였다. 손안에 가지고 있는 저렴한 경제력의 한계. 경제활동과 친하지 않은 성향은 그 해결책을 찾기에 무력했다.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소심함은 머릿속의 상상만으로 몇 개월이 흘렀다. 그러다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장기임차가 가능한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다. 평소의 나였다면 마다했을 상황이나 이번엔 달랐다. 망설임 없이 덥썩 잡았다. 이렇게 보증금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의 첫걸음을 딛게 되었다. 하나를 해결하니 다음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공간을 찾는 일. 보는 공간마다 그 음침함과 썰렁함, 계단참의 칙칙한 남녀공용화장

실, 게다가 높은 임대료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안 들었다. 만족은 아니어도 수용은 되어야했다. 발품을 파는 일이 지속되었다. 어느 날 마음이 가는 공간이 나타났다. 드디어 터전이 마련되었다. 재활용센터에서 책상을 들이고, 하나하나 채워나갔다. 이제는 어엿한 <생기랑마음달풀> 공간. 이제 한 계단 올라섰다.

<생기랑마음달풀>은 잘 사는 삶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배움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문턱 없는 공간. 또 하나 여성(시민사회)운동가들의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개인의 성장을 돕는 충전 공간이었으면 한다. 나의 또 다른 삶의 전환점,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 변화에의 욕망을 키울 수 있게 한 것은 온전히 여성운동의 힘이다. 여기에 긴장감과 두려움은 필수과목임을 알고 있다. 여성들과 더불어 또 다른 '나'를 만나러 간다. 보다 자유롭고 생기 있게!

쉼 너머에 있는 '이상향'을 향해 지금, 여기에서 잘 살기

나랑 | 본 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

쉼에 관한 글을 제안 받는 순간, 옆의 동료가 "딱이네, 딱이야" 한다.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니 작년에 제주도에만 세 번 갔었고 봄에는 지리산 둘레길, 가을에는 7박 8일로 해남 미황사 참선 수행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남들이 뭐라던 휴가를 왕창 붙여 쓰며 철마다 제주 바다에 인사를 건네고 친구들에게 염장질로 귤 한 박스씩 보내는 나는 쉼의 달인인가? 흠…… 뭐 그런 것도 같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쉼'이 아니었다. '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쉼,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재충전'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와 도시의 속도가 버겁기만 한 한 여자가 도시 속에서 낑낑대며 살아가기 위한 고군분투였다. 그렇게 한꺼번에 숨을 들이마셔 폐를 힘껏 부풀려 놓아야 그 힘으로 도시 안에서 쉼 쉬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스스로가 안쓰럽다.

난 쉬고 와서 일을 더 열심히 하기는커녕 쉬고 오면 늘 완전히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한 번 다녀올 때마다 나의 마음과 일상은 들썩들썩, 며칠씩 정신을 못 차렸다. 미황사에 다녀와서는 매일 부도전까지 거닐던 산책이 그리워 한동안 마음을 앓았고 <산책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사서 읽기도 했다. 제주도에 다녀오면 귀촌한 언니들의 블로그를 찾아 어깨가 저릴 때까지 스크롤을 내리며 침을 흘리고, 빈 종이에 연도를 매겨가며 내가 몇 살에 내려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일쑤였다. 마흔 다섯에 제주도로 내려가겠다는 인생 계획은 제주도에 다녀올 때마다 점점 1년씩 앞당겨져 "도대체 지금 당장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니?"라고 스스로에게 묻기도 수차례. 그러다가 또 지금은 운동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내려가서

먹고 살 궁리도 해야 하고. 아, 지난 2년 동안 이 널뛰기를 도대체 몇 번 반복한 걸까. 몇 년 후에 내려가자고 마음을 먹어도 늘 성에 차지 않는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

운동의 쳇바퀴, 쉼이 필요하다

나에겐 이 도시의 속도도 그리고 운동의 속도도 버겁다.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지만 자본주의에 저항하려면 자본주의의 속도를 뒤쫓아 갈 수밖에 없고(앞서 간 적은 없다), 그러다보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은 다른 직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 페이스가 아닌 항상 쫓기면서 일하는 것만 같은 압박감 때문에 깊은 쉼은 늘 목마르다. 일에 온전히 몰입하기 힘든 단체 사무실의 분위기와 자발적 야근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SNS 속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 눈을 감고 아무 데나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멈추어 서서 전망과 대안을 상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깊은 쉼을 쉬려면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소한 몇 달은 놀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비혼으로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 여자는 마음 푹 놓고 인생의 한 국면을 놀아버리기엔 불안한 구석이 너무 많다.

그런데다가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미약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조직이 나에게 부여하는 과제와 책임이 있다. 오늘 한 일은 내일 할 일을 만들어낸다. 이것들을 놓지 못하기에 차라리 그냥 굶고 짧게 일하고 훌쩍 떠나버릴까 충동이 이는 것일까.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있는 운동에 조금 속도를 늦춰볼 것을,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 볼 것을 제안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기엔 단체가 가진 역사와 전통과 위상이 있기에 급격한 변화를 제안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상향을 꿈꾸기에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어찌 보면 나의 공허함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래, 나는 아주 아주 깊은 '쉼', '쉼 너머의 쉼'을 원한다. 도시의 쉼, 숨 막히는 지옥철의

쉼, 창조성이 거세된 장시간 노동의 쉼, 노동착취의 쉼, 그리하여 결국, 자본주의의 쉼. 도시의 속도에서, 그 사이클에서 빠져나가는 것, 그리하여 다시 일상 자체가 재조직되는 것.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각자가 하루에 2~3시간씩 사회적 노동을 한 뒤에 시를 쓰거나 산책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사랑을 나누는 등 말 그대로 모두들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담보할 개인의 자기실현에 몰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상의 묘사를 마르크스의 저작에서 발견하면서 나는 이상향을 꿈꾸기 시작했고 그것이 내 운동의 출발점이었으니까.

이상향에 대한 갈망은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희구로 이어진 것 같다. 자연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이 가진 그 자체의 완전함과 경계 없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소로우처럼 숲 속에 들어가 통나무 집 한 채 짓고 살면서 "삶이 아닌 모든 것들을 때려 엎고 삶의 골수만을 파먹기를", 인생의 어느 한 국면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바람이 늘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음악소리가 아닌 새 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또 자신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SNS가 없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연결감. 나의 '역할'이 아닌 그냥 나, 내가 달고 있는 모든 계급장을 떼어도 그대로 나일 수 있는 존재감. 제주의 오름을 천천히 걷다보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와 상관없이 뜨겁게 차오르는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송악산 벤치 위에 누워 듣는 파도 소리는 살아있음의 감사함과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자연은 나에게 또 하나의 이상향이 되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하기

혼란인지도 모르고 뿌연 안개 속을 정처 없이 걸었던 지난 2년, 널뛰기를 반복한 끝에 요즘은 내면이 조금씩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떠나고 싶어 하면서도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걸 의식하든 못하든 다 이유가 있고, 그건 결국 나의 욕망이라는 사실이다. 하기에 현재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금, 여기'에서 잘 살아가는 것 또한 나의 욕망에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이다.

당장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상향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나의 삶의 균형을 맞춰보려는 시도들을 조금씩 하고 있다. 일에만 올인하지 않으려 하고, 창조하는 즐거움, 배워가는 재미를 만나고, 더 자주 자연을 찾고, 수행하는 일상을 살아보려 한다. 그리고 결코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지 않을 그 이상향을 향해 다리를 놓는 나의 운동을 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에 잘 쓰이자고 다짐해 본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정직성이라고 믿어본다. 이거 이거 너무 교과서적인 답인가? 하하하~

그나저나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제주도는 4월이 가장 아름다운데, 누구 저랑 청보리 군중의 집회 보러 가실 분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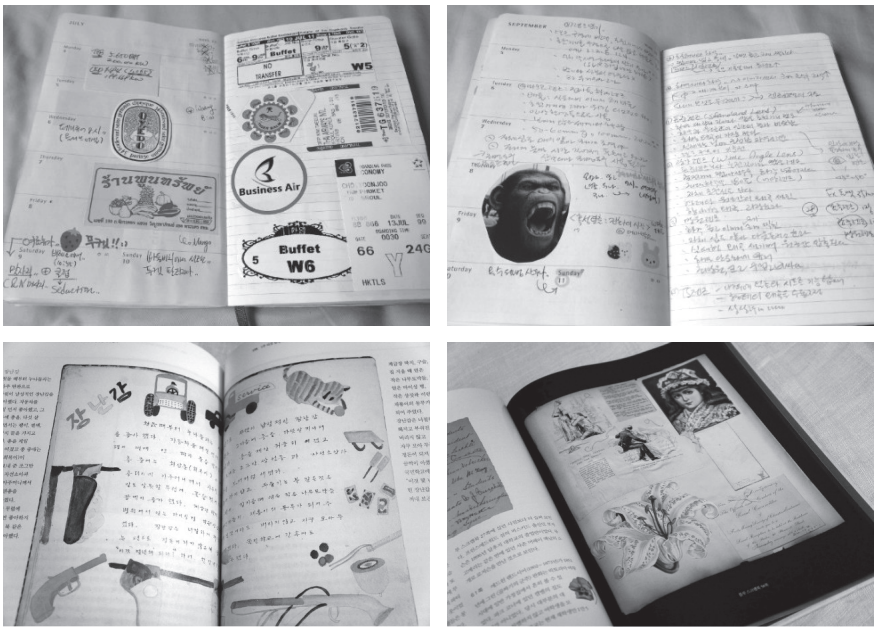
❋ **나랑** 여성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제주도, 기타, 밴드, 초기불교, 명상, 글쓰기, 자전거, 등산,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전천후라는 신념. 그런데 이걸 다 하면서 살려면 더 바빠진다는 딜레마.

삶의 자취 남기기 기록을 좋아하세요?

조윤주 | 본 상담소 회원

당신은 '기록'을 자주하는 편인가? 오랜 기간 동안 손으로 일기를 써본 적이 있다거나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인화해 차곡차곡 앨범에 끼워본 적이 있는지? 관람한 영화나 공연의 티켓 혹은 특별한 물건을 사고 난 뒤 생긴 영수증을 다이어리에 붙여본 적이 있나? 소설책에서 읽은 인상 깊은 구절을 노트에 정성스럽게 기록해 본 적은? 여행지에 가서 생긴 각종 팸플릿과 엽서, 사진을 딱풀이나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보관하는 스크랩북을 만들어 본 적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쓴 각종 지출 목록을 가계부에 하나, 하나 적어 내려가며 '다음 주부턴 돈을 더 아껴 써야지……' 라고 굳은 다짐을 해본 적은? 이 중 단 한 개라도 실행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무척이나 반가울 것 같다. 서로의 노트나 다이어리 등을 꺼내 보여주는 순간, 처음 만난 사이라도 '서먹함' 따위는 금방 벗어던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도 든다.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컴퓨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가 대세인, 그러니까 모든 기록과 소통이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에 아직도 굳건히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며, '물리적 기록'을 이어나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큰 기쁨이니까.

참고로 난 위에서 언급한 질문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소위 말하는 '기록과 스크랩의 중독자'. 물론 이제 더 이상 스크랩을 하지 않거나 '아날로그' 형식을 '디지털' 형식의 기록으로 바꾼 것도 많다. 예를 들면, 일기 쓰기와 사진 앨범 만들기는 이제 '블로그'라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만 하고 있다. 한때 즐겨했던 신문 스크랩도 더 이상 이전 방식을 유지하지 않는다. 얇은 신문 종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피와 무게가 증가하니까. 작년 3월, 5년 만에 대대적으로 방을 정리하면서 쇼핑백 2개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신문 뭉치들을 버렸다. 그때 '앞으로 신문 스크랩은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자체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젠 관심 가는 기사의 URL을 복사해 엑셀 파일에 붙여넣는 것으로 스크랩을 대신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파일을 열어 해당 기사의 URL을 클릭. '아날로그 기록 중독자'의 굴욕이라면 굴욕이지만, 솔직히 매우 편리한 것도 사실.

이처럼 점점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고 있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종이 다이어리 쓰기'.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물리적 형태의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각종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다이어리나 노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스케줄과 잡다한 메모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하지만 난 여전히 종이 다이어리를 이용한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종이 다이어리'를 쓸 예정이다. 스마트

폰 다이어리 앱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지는 모르나 '살아 움직이는 삶'을 포획하는 데 있어 종이 다이어리만큼 좋은 수단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이어리를 쓸 때마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할 때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섬세한 감정들을 느낀다. 좋아하는 뮤지션의 부음 기사, 친구가 준 복숭아차의 티백 포장지, 일본인 사진가의 작품집 속 종이 태그 등을 가위로 반듯하게 잘라 풀로 붙이는 행위에서 '추모'와 '애정', '감동'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내면의 의식을 발견하는 것처럼. 머릿속 생각들을 연필로 흘려 쓸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분쇄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라고? 컴퓨터, 스마트폰 다 놔두고 연필을 잡으라고? 그렇게 귀찮은 짓을 일부러 왜?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익힌 기록의 방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니지 않는가? 내면의 언어를 밖으로 표현할 때 사용했던 첫 도구들은 기계가 아닌 연필과 크레파스, 종이와 풀이었으니까.

러시아어 동시통역사이자 유명한 수필가인 요네하라 마리는 '디즈니랜드가 무서운 이유' 라는 칼럼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디즈니랜드 방문객은 놀이 시설에 준비된 공간으로 들어가면 끝이다. 자기 발로 걷는 것조차 하지 않고, 손을 써 무언가를 조작하지도 않는다. 그저 준비된 기구에 타서 정해진 공간을 이동하고, 놀이 시설이 내는 음향 효과나 시각적 반응을 오로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요컨대 인간이 가진 수많은 능동적인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략) 내 등골에 전율이 흐른 이유는 이 디즈니랜드의 무시무시한 풍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소비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계에 의존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편리하게 산다는 미명하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요즘이다. 온몸은커녕, '열 손가락' 근육을 온전히 다 사용하는 경우도 별로 없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수동성과 소비지향성에 대한 비판은 접어둔 채 다시 '기록하는 즐거움'으로 넘어가겠다. 앞에서 '기록'을 즐겨하는 친구를 만나면 매우 기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때 떠오른

두 사람이 있었다. 스크랩과 기록의 대가로 훗날 스크랩북이 책으로 정식 출간된 루시 몽고메리와 박정희 할머니. 그들의 개인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는『빨강머리 앤 이미지북』과『박정희 할머니의 행복한 육아 일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입이 쩍 벌어졌고, 조금 더 지나서는 가슴이 저릿해졌다. 스크랩북의 시각적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었지만, 삶의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들을 빠지지 않고 기록해 온 인간적 노력이 감동 그 자체였기 때문. 저 두 분의 작품을 본 이후부터 난 물리적 기록을 지속하는 사람은 '삶의 결을 하나하나 매만질 줄 아는 인간'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무릎에 작은 노트를 올려놓고 그 위에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적어본 적이 있는 사람, 친구가 써 준 메모를 버리지 않고 다이어리에 껴놓은 적이 있는 사람,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인화한 뒤 앨범에 한 장, 한 장 끼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과 인생에 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기록의 즐거움을 설파했으니, 이제 미래의 '기록 중독자'들을 모집해 볼까 한다. "내일부터 자신만의 물리적 기록물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권유형 문장과 함께. 일기장, 가계부, 다이어리, 스크랩북, 뭐든지 좋다. 하루 종일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키보드와 씨름하고 온 열손가락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보자. 처음엔 조금 귀찮을지 몰라도, 습관이 되면 매우 즐거운 취미 생활이 될 것이라 믿는다. 분명 삶의 질감과 양감이 풍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이나 펜을 들자. 그리고 근처에 있는 포스트잇에 적어라. "삶의 자취를 남겨보자!" 이 포스트잇을 뜯어내 노트 맨 앞장에 붙이는 순간 삶의 기록이 시작된다. 모두들 도전해 보시길.

사족.

'기록 중독자'가 남긴 베스트 스크랩북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써온 가계부 노트들, 삶의 흔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는 몰스킨 다이어리, 영국 생활을 정리하면서 만든 스크랩북 등이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최고의 작품은

2011년 10월에 발간된『여행수업 Vol. 1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반년 넘게 시장을 돌아다니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기록해 놓은 내 인생 첫번째 '공식 스크랩북'이다. 시장을 사랑하는 동지들과 함께 만들었다.

❀ **조윤주** 상담소 정회원이자 발기인이고, 소설모임 멤버다. '역마살 낀 인생'을 동경하는 근면성실한 직장인이다. IT 브랜드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계치이며, 삶의 방식도 상당히 아날로그적이다. 자연 속을 걷는 것과 삶의 순간, 순간을 기록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종이 냄새와 손때 묻은 낡은 물건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자원활동가에서 소장까지, 상담소와의 20년을 돌아보며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손님은
퇴임을 앞둔 이윤상 소장입니다.
이윤상 소장은 2009년 1월 31일 9대 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제도화에 맞선 반성폭력 진영의 운동성 강화, 2차 피해 방지,
낙태와 같은 여성의 성과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등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자원활동가로 시작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
상담소 역사를 함께 써왔던 이윤상 소장으로부터
그간의 활동 소회를 들어보았습니다.

interviewer_ 백미순 | 본 상담소 부소장

본 상담소 9대 소장 **이윤상**

Q 상담소와의 인연이 깊으시죠? 상담소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A 대학생이었던 1992년으로 기억합니다. 여성학을 수강했는데, 당시 우리 상담소의 활동가이셨던 정경자 자문위원님이 특강을 하셨어요. 김○○·김△△ 사건이 한창일 때였는데, 선생님이 처음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성폭력 경험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본인의 이런 저런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성폭력과 여성운동의 이야기를 풀어가셨고 강의가 끝난 후 다시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성폭력 경험이 있는지. 저를 포함한 몇 명이 손을 들었는데, 그 순간 명명의 정치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의 전율을 느꼈어요. 이름 없던 내 경험에 이름이 붙여지고 해석되는 순간이었다고 할까요, 그 후에 제가 상담소를 찾아가서 자원활동을 자청했죠.

대학원에서 여성학 논문을 쓰고 난 뒤인 1997년 1월부터 약 3년 정도는 활동가로 일했고, 그 이후는 회원활동을 했어요. 부소장은 2006년 11월부터 소장 취임 전까지 했고요. 아마 제가 상담소 내의 모든 포지션을 다 경험한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Q 상담소와의 인연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A 인연이 질겼죠(호탕한 웃음). 제게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가르침을 준 인연이었어요. 솔직히 소장직을 승낙하도록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상담소에 대한 애정이었고 책임감이었어요. 만약 상담소가 아닌 다른 단체의 제안이었다면 승낙 안 했을 겁니다. 모든 활동을 관통한 공통점은 '참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운 노동'을 경험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소장으로서의 부담감은 엄청 컸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가로서 활동하지만 소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사는 느낌이었어요.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안고 살아가는 운명이랄까요. 가지각색의 사람들에 맞춰 소통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당연하지만 보통일은 아니었고요. 더구나 대외적인 얼굴마담 역할을 하게 될 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상담소 활동이나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념을 깰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는 책임감이 의식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저의 취향과의 결별이랄까, 한마디로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Q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며 상담소와 여성운동을 이끌 수 있게 했던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무엇보다 제게 힘을 준 것은 '사람'이었어요. 다수의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구체적인 회원님들이요. 그들이 제 준거집단이었죠.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주변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내일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2010년 상담소 지하에 물이 차서 난리가 났을 때, 상담소의 형편없는 근무환경을 걱정하며 턱턱 기부해주시는 회원님을 뵐 때 정말 든든했어요. 물이 차 있는 지하방, 그 참담함은 말로 다 못해요. 밤새 물을 푸고 출근해보면 또 물이 차 있고. 그것도 추운 겨울에 말이죠. 너무 한심스럽고 서러웠어요. 큰 공사를 하겠다고 손을 걷어붙였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회원님들께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20주년 앙코르 발기인도 그래요. '초심'을 다시 새기고 잘 해나가겠다는 저희의 말만 믿고 다시 발기인으로 참여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것이 상담소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원님들의 지지가 활동가들이나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었습니다.

Q 임기 중에 각종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가 뜨거웠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도 많았습니다. 지난 3년 간의 활동에서 역점을 두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활동을 정리하면서 의 소회를 말씀해주시겠어요?

A 지난 3년 간 시민운동을 움직이는 힘은 시민이라는 것을 현정부가 가르쳐줬어요. 예전에는 기금마련이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현정부에 의해서 그러한 통로들이 막혀버려서 시민이 후원이나 직접 참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상담소가 돌아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슈 레이징(issue raising)과 펀드 레이징(fund raising)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했어요.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 기부도 이뤄지는 식이죠. 이를 위해서 상담소가 날카로움이나 혁신적인 자세 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고, 회원들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SNS나 블로그 활용도 열심히 했어요. 저희는 성폭력을 알려내는 것에서 나아가 성폭력에 대한 불편하지만 날카로운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지요. 쉽게 펀드 레이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문제의식을 지켜가며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의 중요성은 해마다 확장되고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상담통계를 분석했는데, '일관된 현상'은 나이 불문하고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나 친인척이 대다수라는 점이었고, 다른 나라의 통계에서도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여전히 외면되고 있어요.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사건은 예외적인 케이스나 공분하기 좋은 것들뿐이에요. 사회가 이런 예외적 사건들에만 반응할 때 대다수의 유형을 차지하는 피해자들은 더 말할 곳이 없어집니다. 성폭력 대책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매달릴 때, 우리 사회의 성폭력 근절은 기대할 수 없어요.

성폭력 가해자 형벌강화정책에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매우 아쉽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니까 화학적 거세, 찬성하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조치가 정신병리적 문제를 가진 소수의

낯선 사람들에 의해 성폭력이 자행된다는 통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더 분명하게 제시했어야 했는데, 애매모호한 우리의 대응으로 결국 인권과 반성폭력 대응이 함께 가는 가치라는 것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Q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성폭력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이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반성폭력의 운동성은 약화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데,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에 상담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제도화는 우리의 요구였고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 안에 정신이나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가치나 정신을 담보한 사람들이 제도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소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제도 밖에서 긴장감을 주는 역할, 제도가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상담소의 기본가치나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구나 리더는 현재의 작은 결정이 5, 10년 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해요.

임기를 마치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맘으로 말을 한다면, 정부와의 관계에서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상호적이라 정권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현 정부는 부처나 이슈에 따라 자신들에게 불편한 단체나 사람은 논의의 파트너로 삼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이나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정책을 쉽게 결정해왔어요. 우리의 경험 상 적어도 전에는 관련부처에서 자문을 구했을 정도의 사안인데도, 요즘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정책이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아하게 자문을 했다면, 이제는 시위를 하거나 항의방문을 하는 등 소통방식 자체를 변화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이라도 적극적인 컨택이 필요하고, 상대해주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Q 그 간 미녀소장으로서 여성계에 이름을 날리며 상담소의 위상을 드높였는데, 우리 상담소의'노이즈 마케팅'에 있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퇴임 후 대선출마설도 본인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A 상담소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미녀소장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이때, 이윤상 소장의 한바탕 웃음으로 인터뷰 잠시 중단). 제가 '미녀소장'이라는 점을 의식화하기 위해 내외부에서 많이 노력해왔는데, 외부에서는 좀 먹혔지만 내부에서는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활동가들은 참 꿋꿋해요. 이렇게 멋있는 여성들이 뭉텅이로 모여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상담소는 참 특이한 단체입니다. 여성운동에 대한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요.

책 출판을 아직 못해서 총선이나 대선 출마는 불투명합니다(이윤상 소장의 웃음보가 터져서 인터뷰 또 중단). 2006년 부소장으로 활동하면서 끝까지 여성운동가로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성운동가로서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상담소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올 것이고 상담소를 빛내는 일에 기여하면서 상담소女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녀소장 물러갑니다"

[문득 떠오른 질문

{ 지인이 성희롱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회사에 다니는 근심이 대리입니다. 친한 동료 대리가 회식자리에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A사원에게 술을 따르라는 말을 하며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A사원이 성희롱으로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위원회가 꾸려져 동료 대리는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A사원도 힘들겠지만 동료 대리와는 입사 동기이기도 하고 친한 사이여서 옆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동료 대리가 어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별 뜻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인데 너무 억울하다. 지금 A사원은 눈을 마주치지도, 만나주지도 않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심이 네가 대신 만나서 내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 같으니 좋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해주길 바란다.'

회사에는 벌써 소문이 나서 동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고, 저는 동료 대리와 친하긴 하지만 그다지 나서고 싶지는 않고…….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From 근심이〉

A 안녕하세요, 근심이 님. 친한 동료 대리의 부탁을 받고 난감하고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보통 가해자편에 서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감싸 안으려 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고민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근심이 님처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근심이 님도 사건 이후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가해자가 된 동료 대리가 요구하는 상황들로 인해 심적 고통이 상당하셨던 것 같고, 동료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신 걸로 보아 그분들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인의 의도가 성희롱이 아니라면 성희롱이 아닌 걸까요?

조직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맥락은 조직 내 힘의 권력관계와 조직 내 집단문

화,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통념과 사회문화적 규범들이 성희롱을 허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근심이 님의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심이 님의 편지를 읽고 제가 걱정된 점은, 가해 동료 대리가 A사원이 힘들어 한 행동을 단지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표현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보다는 근심이 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동료 대리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A사원이 동료 대리가 한 행위에 불쾌감이나 모욕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됩니다.

동료 대리가 근심이 님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모습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바람직한 성인의 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가해사실이 문제가 될 경우에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 주변인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이 아니었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강화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 양산 및 가해자에게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성문화 안에서 동료 대리는 자신이 익숙하게 해왔던 생각이나 행동들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울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분노를 수용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기를 권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성폭력은 같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피해의 정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을 피해자의 심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A사원도 같은 직장 내에 있는 동료 대리가 자신에게 행한 가해사실을 밝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로 상처받고, 피해 이후 가해자나 주변인의 태도에

의해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A사원의 경우 신입사원으로서 적응해 가는 단계인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직장생활이 많이 힘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 자신은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데, 가해를 한 동료 대리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보다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료 대리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에게 친근감의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가해를 해온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기회로 삼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심이 님이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신 것도 용기를 필요로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료 대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이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가 만들어지면 근심이 님 자신을 위하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님,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동료 대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마음의 문을 닫고 근심이 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근심이 님의 입장과 동료 대리를 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심이 님이 동료 대리의 부탁으로 A사원을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A사원이 느낄 수 있는 상처나 분노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돕고 '사건이 빨리 해결되고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한다면, 현실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그 분노와 요구를 수용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잘못을 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근심이 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근심이 님! 동료 대리에게 그의 행동이 A사원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건강하지 못 한 행위라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료 대리가 A사원에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한 것이 범죄행위가 된 것처럼, 우리는 타인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근심이 님이 상담소에 문을 두드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용기 내어 동료 대리와의 대화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From 복옥〉

2012년 열림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첫째, 열림터 생활인들의 치유·회복과 여성주의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해 오던 일이 아니냐고 물으시겠지만, 올해는 지원 업무를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열림터 생활인들을 더 꼼꼼하게 지원하고, 17년의 긴 역사 속에 녹아들어 있는 활동가들의 고민과 경험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전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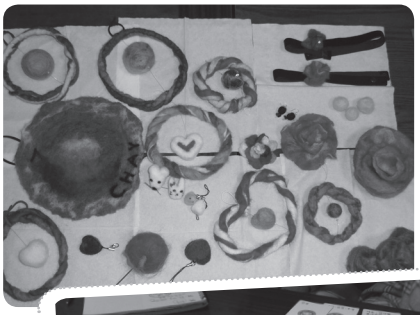
둘째, 생활인들의 자립성을 높이고, 퇴소한 후에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열림터에 사는 동안에도 자립의 힘을 기르고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퇴소자 지원 또한 구조화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열림터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정적 운영 또한 매년 제기되는 과제입니다만, 올해에는 특히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넷째, 20주년을 앞두고 '친족성폭력' 문제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열림터 2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역사와 활동을 갈무리하는 동시에 친족성폭력 이슈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반성폭력 운동의 제도화에 대응하고 열림터의 향후 전망을 모색하겠습니다. 여성인권 정책의 행정 편의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개인정보 집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열림터 다이어리



2월 2일

나도 예술가, 양모펠

설 연휴 동안 양모펠팅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갖고 싶었던 악세사리와 소품을 만드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5월

평화로운 의사소통의 시작, 비폭력대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열림터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8월 20~21일

늦은 밤 해변에 울려퍼진 기타 선율, 여름캠프

인천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바다에서 해수욕과 모래찜질을 하며 신나게 놀고, 저녁에는 열림터 친구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한 게임에 배꼽이 빠져라 웃어가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깊은 밤에는 해변의 악사가 되어 노래하고 춤추며 정을 다졌답니다.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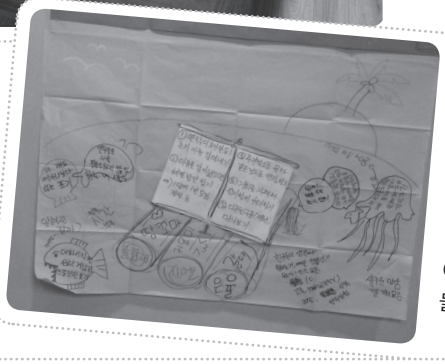
Diary

2011년 열림터, 그녀들의 쨍한 순간

9월

나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본 경제교육

9월에는 경제교육을 했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꿈을 이루며 건강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쓸 것인지 배워 보았답니다.



11월 19~20일

갈등경영프로그램

열림터 전 원장이셨던 장윤경 쌤과 함께 갈등경영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나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 유형인지, 또 상대는 어떤지 알아가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두 개 조로 나뉘어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끙끙~ 선물 푸짐하게 나눠주신 장윤경 쌤, 감사합니다~

12월 10~11일

강원도 천문대로 겨울캠프 고고씽!

우리가 가는 날이 마침 개기월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칠흑같아진 밤하늘에 우리의 소원을 담은 등불을 떠올려 보냈답니다.

[본편보다 재밌는 후일담

한 달 만에 만나는 한해보내기

란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한해보내기 한 달 전

"합정역 7번 출구로 나와서요, 우리은행을 끼고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오세요. 왼쪽에 문구점이 있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와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면 길 끝에 보여요."

하악……. 길 끝에 보인다고 했는데, 잘 안보였습니다. 그렇게 두어 번 왔던 길을 다시 돌고 돌아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소에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는 한 명의 그녀가 뭘 마시겠냐고 묻더니, 방금 막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상담소의 첫 느낌은 향긋하고 따뜻할 수밖에 없었지요. 첫눈에 여기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고요. 그런데 한 시간이 넘는 수다 같은 면접을 보고 나오면서 전 낙담했습니다. '미녀소장'이라던 분이 저에게 물었던 마지막 물음의 제대답이 저도 별로 맘에 안 들었거든요.

아…… 떨어졌겠다,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 상담소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한해보내기 일주일 전

여성주의상담팀 신입활동가로 들어와 지낸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던 그녀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회원 분들과의 중요한 만남인 한해보내기를 준비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녀는 상근활동가 두 나였습니다. 한 달 밖에 안 된 신입이 한해보내기의 중요성을 알 리 없으니 덜컥 그

냥 같이 하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해보내기가 일주일 남은 날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바로 그날의 공연을 책임질 공연 섭외였습니다. 한해보내기 때 상근활동가들이 멋진 공연을 준비하는데, 올해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연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으니까요. 시크릿의 '별빛달빛' 춤을 추자, 사마귀유치원을 각색하자 등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결국 공연은 준비된 그녀들, 상근활동가 '마도'가 속한 싱어송라이터 그룹 '소시리어스'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우리 10대 청소녀 회원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십센트'가 공연을 해주었고요. 당일에서야 알았지만 공연을 한 두 팀 모두 능력자였습니다. '소시리어스'의 무대는 감질 나는 가사와 퍼포먼스로 회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충분했고, '십센트'는 나가수 뺨치는 폭풍성량으로 회원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공연섭외가 되고 나니 그래도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앗. 그런데 한해보내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누가 볼 건지, 2011년 사업보고와 각종 프로그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당일 사용할 음식도 준비해야 했고요. 사회는 상담소

의 입담을 책임지는 '토리'와 '복옥'에게 맡겨졌습니다. 처음에 부탁했을 때는 둘 다 난색을 표하더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드레스코드까지 맞추는 센스를 발휘해줬습니다. 사회 대본을 작성하던 토리는 스스로 쓴 재밌는 구절에서 혼자 웃음을 참지 못했고, 복옥은 자연스러운 연기로 마치 대본 없이 즉흥으로 사회를 보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요.

당일 참가하실 회원님들이 부족하지 않게 드실 수 있도록 음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공명'은 고기를 먹지 않는 회원들을 위해 햄이나 소시지 등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샌드위치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도착하신 회원 분들께 추첨번호와 함께 드릴 초콜릿을 사기 위해 '배'는 합정동과 상수동 근처의 슈퍼를 돌아 온갖 종류의 초콜릿을 모아왔습니다.

한해보내기 준비는 척척 진행됐습니다. 두나가 걱정하지 말라던 이유가 다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저의 조바심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상근활동가들은 나눠진 일들을 눈 깜짝하는 사이에 해냈습니다. 이러니 신입활동가 눈에는 어마어마한 업무에 늘 시달리면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야 말로 상담소의 매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밖에요.

드디어 한해보내기 당일

올해 들어 제일 춥다던 그날. 합정역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마리스타 교육원에 회원 분들이 속속 도착하셨습니다. 손이 빨개질 정도로 추운날씨에 '나랑'이 합정역부터 마리스타까지 발자국 안내판을 붙였지만, 어떤 회원 분은 마리스타를 찾기 어려워 1시간이나 근처를 헤매셨다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그래도 도착한 회원 분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부스행사로 진행된 페이지비의 다이어리를 구매하고, 가져오신 선물을 나누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본 행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은 '미초'가 했습니다. 당일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진행순서에 맞추어 넘기는 역할을 담당했거든요. 미초는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화장실을 다녀오며, 실수할까 봐 긴장된다고 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끄러운 솜씨를 보여줬습니다.

본 행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모습은 단연 '미순'의 '윤상' 따라잡기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윤상의 헤어스타일과 판박이인 가발을 쓴 미순은 자기 한 몸 불사질러 한해보내기의 분위기를 업 시키겠다는 각오로 무대에 섰어요. 당연히 좌중은 쓰러졌고요. 그 모습은 사진으로 남아있답니다.

무엇보다 한해보내기의 훈훈함은 상담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실세(?)인 '회원'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바쁜 연말에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답니다. 특히 선물 나눔을 위해 일일이 손수 선물을 들고 들어오던 회원 분들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새로운 활동가로, 신입 회원으로, 한 달 만에 만난 한해보내기는 제가 상담소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한해보내기를 만나고 또 한 달이 되어가려는 흐른 지금, 쌓여가는 상담일지와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면접상담 일정이 버겁기도 하지만 저에게 상담소는 일주일 만에 행사 하나를 뚝딱 해낼 만큼 팀워크가 좋은, 유쾌함과 따뜻함이 감도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만난 한해를 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네요. 저도 상담소도 부쩍 자라나는 한해가 될 2012년 끝자락의 한해보내기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해봅니다.

❀ **란** 별칭과 본명 사이에서 갈등하다 귀차니즘 발동으로 그냥 이름만 사용하는 중. 동거견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기는 상담소의 파릇한 신입활동가.

모과차 담근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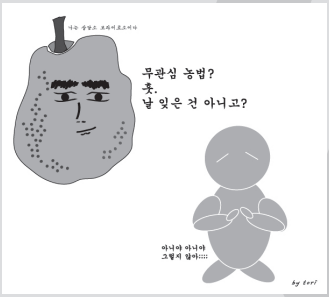
토리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가을에 상담소를 방문했던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담소에는 도시의 삭막함을 꿋꿋하게 견디며
따로 보살펴주지도 않아도 매년 저 혼자 열매를 맺고 다시 잎을 틔우는
튼튼한 모과나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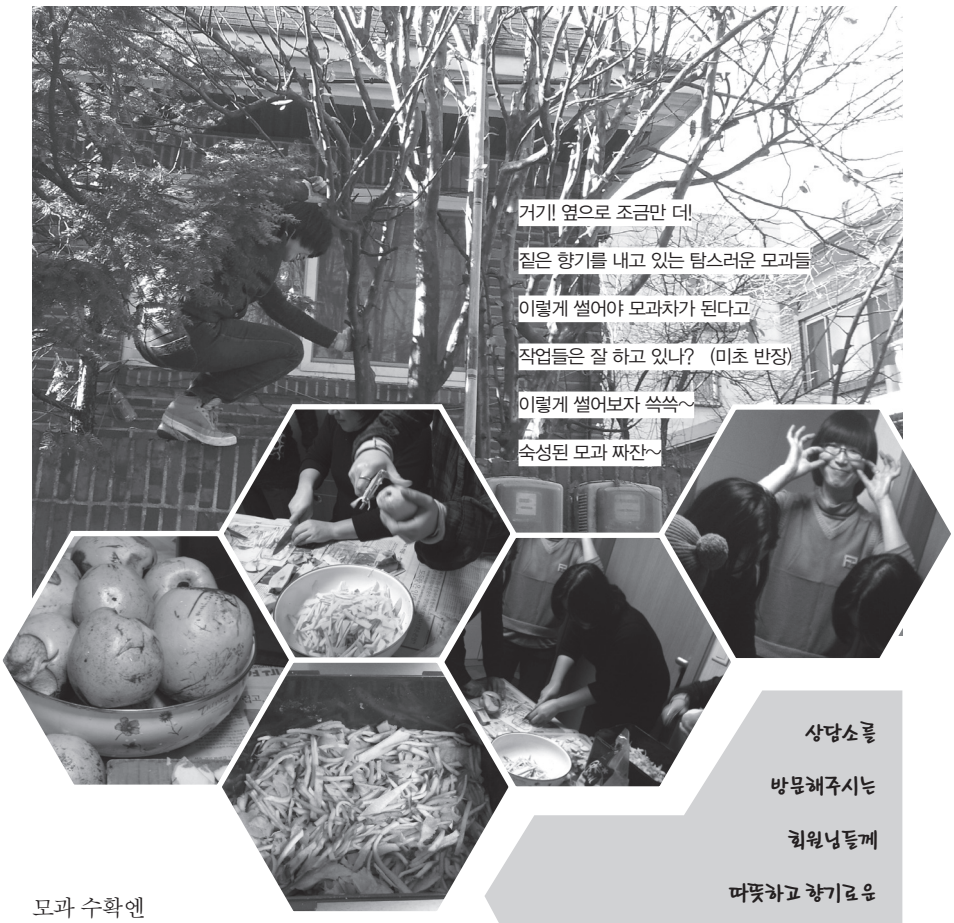
그동안 상담소 활동가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다보니
아쉽게도 이 탐스러운 모과들이 시들고 망그러져,
그냥 떠나보낸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는 상담소 활동가들이 모두 의기투합!!하여
상담소에 찾아온 모과와 함께 감기 없는 겨울을 보내리라 다짐하며,
모과청을 만들어보았답니다.

무관심 농법으로 자란 모과로 만든 맛깔나는 상담소 모과청!
모과청을 담근 활동가들의 하루를 만나볼까요?



❋ **토리** 반성폭력 운동만큼 요리를 좋아하는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모과 수확엔
이웃집 주민께서 빌려주신 장대와,
미초&란 활동가의 긴 팔과 다리를 이용하였습니다.

피오나 책임상담원 선생님은 모과청에 필요한
설탕을 후원해주셨어요.
점심을 먹고 우르르 모인 활동가들은
모두 자기만의 모과 썰기 신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단하던 모과들이 금세 모과청으로 변신해갔어요.

이렇게 완성된 모과청이 지금 3주 동안 숙성중이랍니다.
사진에서 짙은 모과향이 느껴지시나요.

이 날 가스불에 달달 끓여 먹은 갓 담근 모과청은 정말 맛났답니다.
한 달 쯤 더 숙성되면 아주 아주 맛있는 모과청이 되겠지요?

상담소를
방문해주시는
회원님들께
따뜻하고 향기로운
모과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직접 만든 모과차가
그리운 분들이라면,
상담소에 방문해주세요.
회원님을
환영합니다^^**

{ 2011년 8월 ~ 12월 활동보고 }

8. 1~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8.30~10.25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 감수성교육 〈아이들의 성폭력? 아는 만큼 보인다!〉 (1차: 부모 대상, 2차: 교사 대상)

8.31
성희롱 국회의원 강용석 제명 촉구 정당 · 여성 · 언론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 및 100인의 시민 방청단

9. 2~4
욕망찾기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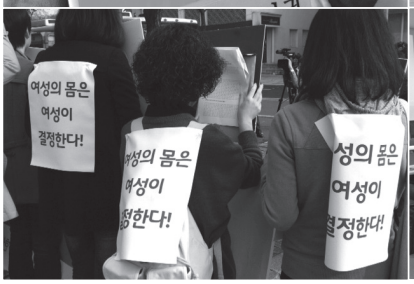
9.22
오마이뉴스 8월의 뉴스게릴라 특별상 수상

9.22
장애인 등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절차 참여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10.6~11.3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워크숍 〈성폭력가해자, 어떻게 만날까?〉

11.10
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관한 기자회견

11.11
차별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인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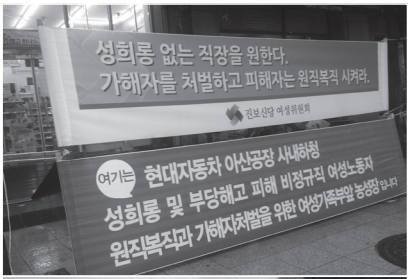
11.30
2012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여성단체 의견 발표 기자회견

11.28
개소 20주년 기념 토론회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

12. 1~30
성폭력피해생존자를위한 "생존키트" 지원(총 6명)

12.16
한해보내기

12.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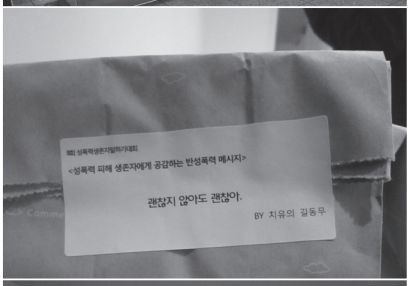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공개답변〉

8.10~11.26
사전 워크숍 / 작품 기획 및 제작

9.19, 24
필리핀 페미니스트 작가 Alma Quinto 미술치료

12. 1~6
〈공개답변〉 전시

12. 3, 12. 6
〈공개답변〉 말하기 무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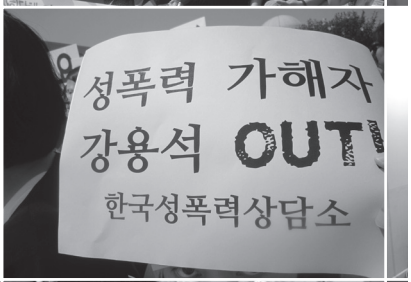
8.27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 노동자를 위한 후원 티셔츠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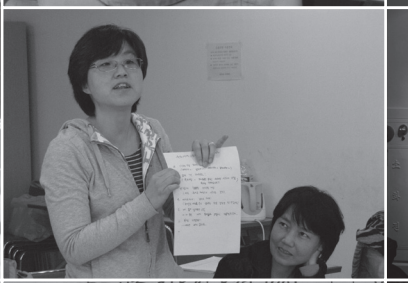
10.24
성희롱 피해자 2차가해 및 인권유린 현대자동차 규탄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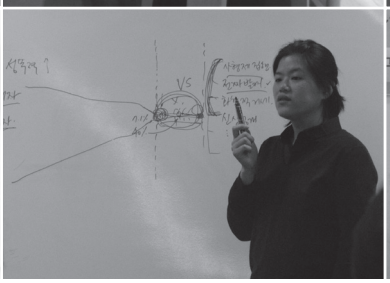
11.29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산재인정 관련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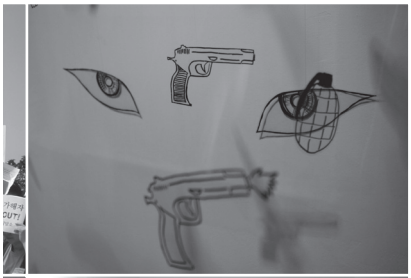
12.15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 노동자 투쟁승리 보고대회

작은말하기
8.3, 8.31, 9.28, 10.26, 11.30









외부 활동

8.11
국회의원 전병헌 의원실 주최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토론회" (토론)

9. 1
진보신당 돌발토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여성주의는 어디에?" (토론)

9.26
필리핀 페미니스트 작가 Alma Quinto 초청 세미나 "역경 속의 창조: 예술을 통한 지지와 활동" (발표)

11.18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 (발제)

12.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폭력 처벌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

NGO와 기업의 특별한 만남

두나 | 본 상담소 기획조직국장

NGO는 기업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정부나 기업 활동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영리조직인 기업 사이의 접점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습니다. 상담소가 기업과 맺고 있는 관계만 보아도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직장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무관심한 기업을 규탄하거나, 성차별·성폭력적 기업문화를 문제 삼을 때 만납니다. 그리고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정도지요. 말하자면 상담소에게 기업은 성폭력·성희롱이 난무하는 반성폭력 운동의 현장이자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시민사회단체는 기업과 이제까지와 조금 다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이자 파트너로 기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사회적 책임 수행이 수익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면서, 기업은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편이자 사회 참여의 일환으로 사회 공헌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후원과 참여를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기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약화되거나, 단체를 후원하는 기업이 논란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 해당 단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담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고려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일깨우고 독려해 사회적으로 기업의 자원을 나누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가치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무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의식이 있고 관련분야에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없으며, 회사 이미지와 공익적 가치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상담소는 도전 중!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상담소도 기업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원의 교환을 넘어 서로의 가치를 나누고 함께 변화를 모색하는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중입니다.

출판사 '문학동네'와의 파트너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상담소는 문학동네의 후원금으로 성·인권교육 프로그램인 '인권감수성교실'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가치와 가능성에 적극 동의한 문학동네는 프로그램 내용이 담긴 어린이 대상 성·인권교육 도서의 발간을 상담소에 제안했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후원으로 시작해 교육·출판으로 이어진 파트너십은 상담소가 많은 사람들과 반성폭력 운동의 가치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과 서로의 가치와 지향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

다. 다이어리 판매 수익의 후원을 제안한 출판사 '페이지비'와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페이지비'의 다이어리에는 여성의 힘 기르기, 소수자에 대한 이해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데, 이는 상담소가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상담소가 다이어리를 회원들에게 소개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함께 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세상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겨레21'에서 진행하는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은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가 서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정기구독 신청자가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시민사회단체를 지정하여 구독료의 10%를 기부하는 이 캠페인을 통해, 참여단체는 후원금 마련으로 재정자립을 꾀하고 '한겨레 21'은 독자를 얻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이런 시도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왜곡 없이 전달하는 소통 창구를 함께 만들고 지켜간다는 점에서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상담소는 기업과의 다양하고 새로운 관계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서로의 자원과 가치를 나누며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수 있을까요? 혼자일 때 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요. 물론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겠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보다 많은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기여를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담소는 기업과의 새롭고 특별한 실험에 기꺼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과 상담소가 서로의 자원과 가치를 나누고 활용을 고민하다보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르니까요!

❀ **두나** 집에서 뒹굴거리기를 잘합니다. 모든 여자들에게 맘편히 뒹굴거릴 수 있는 집이 생기기를 바라는 집귀신 페미니스트.

♥

올 하반기에도 상담소와 열림터에는
훈훈한 기부가 이어져왔습니다.
9월 한가위에는 과일, 송편부터 와인, 커피까지
다양한 선물들이 상담소 생활을 더욱 풍성히 만들어주었고
상담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은
간장게장, 맛있는 대천김 등 상담소 식탁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10월에는 조일래 회원님께서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9대를
상담소까지 직접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산 전 활동가는 어머님 최해숙님과 함께
상담소에 청소기를 각각 한 대씩 기부해주셔서
구석구석 깨끗한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순희 회원님의 자립지원금은
열림터 퇴소 생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_^

{상담소}

추석선물

박미란 회원 강정 / **문학동네** 커피 / **조인섭 변호사** 와인 / **카피플러스** 포도 / **김의창 변호사** 배
샨티 상담자원활동가 배 / **이경환 자문위원** 화과자 / **이선경 회원** 송편과 떡 / **허정익 회원** 핫초콜렛

현물기부

조일래 회원 노트북 / **국화 상담자원활동가** 김 / **헤나 상담자원활동가** 간장게장 / **조은희 상담자원활동가** 매실주
이선경 회원 제주 강정마을 귤 / **권정 변호사** 케익 / **이산 전 활동가와 어머니** 청소기

{열림터}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운 나눔 생활용품 / **정순희 회원** 퇴소하는 생활인을 위한 자립지원금 450만원 후원

{ 회원 소식 }

전 상근활동가 두 분의 의미 있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지혜 님은 「아동기 성폭력 경험의 회복 과정에 관한 연구」(2011)를, 이미경 님은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2011)를 주제로 오랜 활동의 경험을 녹여낸 굵직한 연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반성폭력 운동의 현장과 학계의 연구가 계속해서 서로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자문위원 김재련 변호사님께서 여성신문 주최 2012 미래를 이끌어 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님은 여성인권 운동의 현장에서 법조인으로서 생존자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수상의 공을 단체 활동가들에게 돌리셨다고 할 정도로 많은 여성운동단체들, 물론 상담소와도 끈끈한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김재련 변호사님의 미지상 수상, 축하 드립니다!

여성소설읽기모임의 조윤주 회원 님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여행서, 『여행수업 Vol. 1 시장 : 여행작가를 꿈꾸는 이들의 서울 시장 구경』이 발행되었습니다. 자타공인 '기록과 스크랩의 중독자' 조윤주 님은 서울의 시장들 구석구석까지 따스한 감성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색다른 여행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당장 온 · 오프라인 서점을 방문해주세요!

여성소설읽기모임의 여름 회원 님은 멋진 여성들과 출판사 '페이지비'를 열어 여성과 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이어리와 디자인 문구를 제작 ·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 〈나눔과 참여〉에도 소개가 되었지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될 지 기대됩니다. 가치를 나누는 또 다른 힘찬 걸음을 응원해주세요!

{ 소모임 소식 }

〈여성소설읽기 모임〉

날이 갈수록 흥하고 있는 여성소설읽기 모임에서는 2011년 하반기부터 소설 읽기를 잠시 중단하고 페미니즘 이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의 『페미니즘 사상』(한신문화사)을 시작으로 한 달에 두 번을 만나며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젠더 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 문화연구』(문학동네)까지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내공 다지기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는 활발하고 풍부한 토론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예지 곽경화 권나현 권서영 권인선 권인자 김미주 김상정 김요한 김재원 김초롱 김현경 김현자 박미영 백미순 백지훈 성길성 송호균 안하영 윤지원 이경호 이사랑 이석주 이소은 이종근 이영주 이현희 이혜일 장혜영 조혜진 진새록 차우진 최란 최미선 홍유미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근정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명숙 강보길 강선미 강수준 강영 강영미 강영순 강영화 강은주 강이현주 강인화 강정희 강지이 강혜숙 강희진 계경문 고금이 고미라 고보경 고예지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효주 곽경화 곽옥미 곽윤이 구민희 구본준 권경희 권구홍 권기욱 권김현영 권나현 권명진 권민혁 권소영 권오란 권인선 권인숙 권인자 권주희 권해수 금철영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애 김경태 김경헌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광만 김광진 김금선 김기혜 김나연 김난형 김다미 김다은 김대숙 김도연 김동래 김동령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둘순 김매정 김명숙 김문빈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주 김미희 김민규 김민미 김민성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병필 김보연 김보화 김상미 김상민 김상정 김상호 김상희 김샛별 김선경 김선미 김선민 김선애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자 김세훈 김세희 김소명 김소연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숙영 김순자 김승구 김아름 김애라 김아리 김양지 김예림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김태진) 김연지 김연진 김연희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신 김영애 김영환 김예람 김옥주 김외자 김용란 김용백 김원식 김원정 김원희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경 김윤희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아 김은정 김은하 김은혜 김은희 김응진 김의창 김이슬 김인애 김인철 김인혜 김일륜 김자경 김재원 김재원 김재윤 김재훈 김정수 김정완 김종수,권상범 김종희 김주영 김주희 김준호 김지미 김지선 김지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김해리) 김진숙 김진영 김진희 김초롱 김춘경 김택환 김태섭 김택진 김하나 김하나 김하연,나성일 김하정 김한상 김한선혜 김해경 김현 김현경 김현경 김현란 김현성 김현수 김현숙 김현자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련 김혜숙 김혜승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혜현 김화영 김효선 김효정 김효진 김효진 김희경 김희정 나길회 나미나 나윤희 나인선 남길석 남덕우 남성희 남재인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노경란 노귀연 노길옥 노미선 노민희 노복미 노선이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도병욱 도상금 라길자 류란 류허미라 류세하 류종현 류진봉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김채연 문길환 문미라 문미정 문성훈 문수연 문숙영 문영민 문준희 문지영 문지은 문효진 문희영 민정원 박경미(민초) 박경훈 박기원 박다위 박덕임 박명숙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헌 박보영 박상규 박상순 박상희 박상희 박선숙 박선희 박성주 박세정 박소라 박소연 박수연 박수진 박순복 박승일 박아름 박영 박영주 박윤미 박윤숙 박은미 박은정 박은진 박은혜,이준기 박정란 박정순 박정연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종선 박주연 박준면 박준숙 박지나 박지영 박진숙 박진표 박창경 박하윤경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주 박현준 박혜진 박효정 박희정 방기연 방상희 방은제 배경 배은경 배자하 배재훈 배정원 배정철 배지연 백명숙 백미록 백미순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지선 백지훈 백현 변계희 변순임 변혜정 상묵스님 서권일 서명선 서명호 서미현 서민자 서백열 서범원 서석호 서순진 서영주 서예린 서용완 서윤숙 서정기 서정애 서정표 서정훈 서주연 서태자 서해인 서희석 서희손 선희갑 설동민 설연자 성길성 성나리 성지은 손경이 손기주 손명구 손명화 손미연 손보경 손연성 손우성 손정혜 손준성 손희정 송미헌 송민성 송수영 송승훈 송애랑 송요신 송은숙 송은주 송지선 송치선 송혜영 송호균 신겸우 신경혜 신나영 신동헌 신동훈 신명숙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애 신성용 신영미 신원제 신윤진 신은재 신은주 신정혜 신종훈 신현 신현정 신혜성 심공채 심소영 심수희 심진섭 심창교 심혜련 심현실 안문환 안민 안보라 안재훈 안정은 안주리 안창혜 안철민 안초롱 안하영 안형윤 안홍자 양미초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애경 양영희 양영희 양윤희 양은주 양지혜 양창수 양현경 양현구 양효준 엄인숙 여한숙 오경희 오광수 오미근 오세희 오숙희 오송환 오승이 오신혜 오자정 오자영 오정진 오정희 오지원 오진아 오현주 오혜란 옥민영 우안녕 우완 우춘희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창연 원형섭 원혜숙 유경란 유경희 유계옥 유배숙 유상열 유선옥 유선원 유세정 유숙조 유여원 유연택 유예리 유은주 유재영 유정호 유해숙 유향순 유현광 유환숙 육상근 윤나래 윤법석 윤석남 윤소정 윤소희 윤수연 윤수련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양현 윤연숙 윤영란 윤영미 윤영숙 윤영흠 윤용미 윤인영 윤자영 윤정희 윤준섭 윤지영 윤지영 윤지원 윤지원

음선화 이경로 이경미 이경숙 이경숙 이경아 이경아 이경은 이경자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고운 이광숙 이규화 이김명란 이금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내화 이다정 이동규 이동원 이동현 이명숙 이명숙 이명철 이명희 이문주 이미경 이미정 이미정 이미현 이민정 이병주 이보라 이부덕 이사랑 이상근 이상미 이상연 이상은 이새롬 이서영 이서지 이선경 이선미 이성수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권승엽) 이송이 이수안 이수웅 이승구 이승숙 이승진 이신정 이어진 이연실 이연정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아 이영자 이영주 이영주 이영택 이영희 이예지 이용창 이원경 이원수 이원홍 이유정 이유정 이윤경 이윤상 이윤선 이윤성 이윤옥 이윤희 이은 이은미 이은비 이은상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인숙 이인환 이임혜경 이혜경 이재순 이재은 이정민 이정봉 이정숙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종국 이종근 이주연 이주헌 이준구 이준범 이준형 이지선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지오 이지은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진숙 이진아 이찬희 이창원 이창윤 이쾌희 이태숙 이해사랑 이향심 이현숙 이현희 이형찬 이혜경 이혜경 이혜일 이혜정 이혜진(이진주) 이호균 이호중 이호진 이홍연 이효섭 이화자 이희경 이희수 이희영 이희화 인정환 임복선 임선자 임수연 임순영 임승환 임자영 임주희 임지숙 임치선 임치순 임현홍 임흥섭 임희윤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민경 장서영 장성 장순례 장영애 장영희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익수 장정희 장종순 장진 장혜란 장혜영 장효정 전우 전민주 전병미 전보임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애 전유경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전호완 정경아 정경애 정교화 정귀원 정다미 정대근 정대성 정덕기 정동연 정두영 정영 정명종 정민이 정복련 정세원 정소린 정소영 정숙경 정순옥 정순희 정슬아 정안나 정여진 정영석 정영선 정예지 정옥 정유림 정유석 정윤경 정은선 정재훈(나선영) 정정기 정정희 정정희 정준애 정지민 정지현 정진욱 정진화 정창수 정창희(정인호) 정해랑 정현 정현희 제갈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성천 조성혜 조소연 조영선 조용범 조윤주 조은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섭 조인옥 조일 조일래 조재옥 조정은 조중신 조지혜 조진 조현미 조현아 조형원 조혜영 조혜진 주광용 주리아 주명희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은정 지인순 지현우 진새록 진석중 진태란 차성안 차우진 차인순 차현영 채우리 채하승연 채현숙 채희영 천정환 최경식 최광락 최광식 최광옥 최규영 최기홍 최대연 최대웅 최동석 최란 최명숙 최미경 최미숙 최보원 최석우 최선규 최선아 최성숙 최성옥 최성호 최성화 최소란 최수연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순미 최아림 최연순 최영애 최영지 최예원 최옥경 최왕열 최용득 최유미 최유진 최윤미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경 최은영 최은영 최정림 최정운 최정임 최정희 최주정 최지나 최지녀 최지영 최진안 추민주 추정희 추주형 추혜인 춘옥 탁옥희 하나은 하다영 하수은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주현 하진옥 한계영 한기모 한형 한미화 한보경 한석구 한수현 한승진 한승희 한윤정 한재철 한채윤 한희정 허경현 허남주 허라금 허복옥 허순 허은주 허이화 허정익 허준석 현정순 홍만희 홍민철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순기 홍유미 홍유진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주연 홍진경 홍혜선 황미선 황상하 황성기 황숙희 황순경 황재호 황정임 황정진 황지성 황지영 황지윤 100주년기념교회 삼성인지감성연구소 ㈜스마일서브 ㈜에이치이엠코리아(ELLE) 영국부인회(BASS) 존타클럽 ㈜한국야마자키마작 한전부녀회 해피빈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와 열림터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강학중 고정님 곽미정 권윤진 권익승 권진구 권형구 김경헌 김덕현 김명희 김미주 김삼화 김선영 김예지 김옥란 김재련 김정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나인선 노주희 니콜라 레나레빗 명진숙 문경란 문해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상순 박서현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박지만(㈜EG) 배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손용석 시연숙 신동언 신상호 신혜경 심공채 안백린 안채영 안형정 야기시노부 우기호 유소영 유호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동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경 이병규 이병우 이상구 이승기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유정 이정숙 이혜경 이혜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병환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효광) 정순희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욱 정휘재 조선혜 조성천 조영미 조영황 조인석 조일래 조혜옥 주관수 채영수 천수빈 천정환 청담마리산부인과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한국웰테크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승아